

월요광장

나는 욕망의 진짜 주인일까



심 옥 숙
인문지행 대표

요즘엔 자신을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능력이다. 자신의 내밀한 생각과 감정까지 드러내는 데에 사용되는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욕망이라는 단어다. 욕망은 웬지 입에 올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어감을 가진 단어임에도 어느 사이에 일상적 언어가 되었다. ‘아저씨의 욕망’, ‘아줌마의 욕망’이니 하는 표현도 이제는 낯설지 않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욕망이란 ‘무엇인가’를 원한다는 것이다.

욕망의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나’의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는 의미일 것이다. 무엇인가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원초적인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욕망한다는 것은 곧 살아 있다는 증거라고 말하기도 한다. 즉 욕망이야말로 삶을 지속하는 조건이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도록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법조칼럼



신 비 나
광주지검 검사

얼마 전 2조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의 총책이 검거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검거된 총책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범죄수익으로 수익 원대 외 제자를 구입하고, 강남과 수도권의 고급 아파트나 빌라를 빌려 은신처로 사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했었다고 한다.

광주지방검찰청에서도 금융기관 입직원 등이 가담한 43억 원대 불법대출 조직을 적발하였는데, 피의자 중 일부는 대출 서류 등을 조작해 받은 대출금으로 아파트 5채를 신축하고 호화생활을 즐겼던

범죄로 얻은 열매는 쓰다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이 범죄로 얻은 막대한 수익을 좇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범죄자가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것에 그치고, 범죄수익은 범죄자의 것으로 계속 남게 된다면 어떻게. 아마도 범죄자들은 기존 범죄로 얻은 수익을 기반으로 유사한 범죄를 계속 저질러 더 큰 수익을 얻으려 하고, 이를 모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범죄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범죄로 얻은 수익의 박탈을 통해 범죄 유발 동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동종 범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형법에서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등을 몰수,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뇌물, 도박개장, 배임수재 등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까지도 몰수, 추징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을 입금하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으로 마치 범죄수익이 다른 사람의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범죄수익은닉 행위 자체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이 같은 범죄수익환수 관련 규정을 통해 범죄자들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 추징당할 수 있다. 몰수, 추징 대상에는 범죄자들이 호화생활을 하며 사용한 현금이나 포함될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까지 포함되고, 더 나아가 범죄수익 은닉행위가 있는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처벌받는 등 범죄로 얻은 열매의 쓴맛을 보게 될 수 있다.

스 학자의 생각이다.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얼굴에 대한 욕망은 특정한 연예인의 모습에 대한 욕망으로 매개되고,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성형 수술을 받으므로써 욕망을 충족한다. 또는 광고에 나온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광고 속의 연예인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하지만 이러한 현대인의 욕망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자신의 고유한 욕망이 아니고 매개체를 통해서 암시된 가짜 욕망이다. 가짜 욕망은 매개체가 달라지면 다시 달라지는 모방된 욕망이고, 욕망의 욕망이다. 한 번의 성형 수술이 두 번, 세 번으로 이어지는 이유다.

욕망의 삼각형은 타자의 삶에 기생하는 부정적인 욕망의 구조이다. 이러한 삼각형의 욕망은 끝없이 반복되고 증식될 뿐, 결코 생성하는 힘으로 변화하지 않는 허무하고 공허한 욕망이다. 나가서 자기를 파괴하고 위축시키는 가짜의 욕망이다.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사회일수록 가짜 욕망의 힘은 거세다. 이러한 가짜 욕망이 위협한 것은 욕망의 대상을 모방하고 흉내 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가짜 욕망은 가짜 가치를 확산하며, 가짜의 ‘나’를 양산한다.

결국, ‘나’의 욕망에 대한 성찰은 삶에 대한 긍정과 부정, ‘나’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어떻게 욕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자기 보존의 근본적인 문제다.

社說

비서실 개편 박근혜정부 ‘소통 정치’ 나서나

4·13 총선으로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정치지형이 만들어진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 운영 스타일 변화에 관심이 모인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장을 교체하는 등 참모진 개편과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 국정 쇄신 의지를 보여 주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원종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 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이 실장은 행정 전문가로 충북도지사를 3차례 역임한 바 있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역 발전위원장을 맡는 등 경력이 풍부해 충실한 대통령 보좌와 함께 지역 균형 발전에도 역활이 기대된다. 정책조정 수석에는 안종범 현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바꾸고, 경제수석에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을 발탁했다.

이에 앞서 지난날 박 대통령은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과 청와대에서 만나 대표팀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또한 국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3당 대표와 1분기에 한 번씩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한 것은 큰 소득이라 하겠다. 문제가 어렵더라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총선 결과가 불리한 정치 지형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일단 정치권이 ‘협치’에 나선 것은 여야는 물론 국민에게 유익하다는 점에서 반길 만하다. 이날 모임에서는 또 경제난 해소를 위해 힘을 모으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법조계 전관예우 논란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도 큰 성과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았듯이 무한 대립과 갈등의 반복으로는 국정 현안 중 어느 하나도 풀여 나가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새 국회 시작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민의를 좇는 정치를 하기로 약속한 것은 의미가 있다. 첫걸음을 댄 ‘소통 정치’의 행방을 국민은 주시하고 있다.

드라마세트장 혈세 낭비 더 이상 없어야

전남도와 각 자치단체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은 드라마 세트장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한다. 전남도와 여수(드라마 선택·순천(빛과 그림자 등)·나주시(주몽)·완도(장보고)·장흥군(신어)은 드라마세트장 건립에 모두 300억 원(도·시·군비)을 지원했으나 순천을 제외한 이들 세트장 대부분이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패, 혈세만 축낸 채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흥군의 경우 지난 2010년 도비와 군비 등 총 72억 원을 투입해 드라마 세트장을 만들었지만 해당 공무원들이 국고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던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로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2년이 넘도록 개장조차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나주 역시 지난 2005년 모두 20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나주 영상테마파크를 조성했으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유지관리비 문제로 아예 세트장을 철거한 지자체도 있다. 완도는 지난

2004년 150억 원을 들여 건립한 청해진포구 세트장의 일부(신라방)를 철거 예정인 여수도 지난 2005년 건립한 세트장을 철거했다.

이처럼 드라마 세트장이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이유는 각 지자체 등이 구체적인 사후 활용 계획 없이 경쟁적으로 세트장 유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드라마 촬영지가 관광 명소로 각광받는 사례는 ‘모래시계’의 강릉 정동진, ‘겨울연가’의 춘천 남이섬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드라마세트장의 경우 방영 당시에만 잠깐 수익을 거둘 수 있을 뿐 향후 매년 억대에 이르는 비용을 들여 가면서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은 권장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경제효과나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단체장의 치적 홍보용으로 따라했다가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기 고

다시 오월에...



김 종 료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다시 오월이다. 오월이 되면 살아났다는 부끄러움과 부채의식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던 시간이 있었다. 세월이 흘러 이제 그런 감정이 많이 누그러졌다. 하지만, 이제는 또 다른 아픔으로 가슴앓이를 하곤 한다. 오월정신으로 충만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선도했던 광주시민들이 너무 무력감에 젖어 있어서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어느 지역 사람들하고 만나도 과도할 정도로 광주의 아픔과 꽃꽂았던 광주정신을 알렸던 광주시민이었다. 민주를 위해 흘린 피를 자랑스

러워했던 의연한 모습은 도대체 어디로 숨었을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목청껏 부르며 오월정신을 만방에 알리던 이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광주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6년, 벌써 광주 5·18이 잊혀져가고 있는 듯해서 가슴 아프다. 잊혀질 뿐 아니라 후세대에게 광주 5월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길 없다. 실제로 광주 청소년들은 설문조사에서 ‘5·18민중항쟁’ 또는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거의 절반 정도가 잘 모르고 있었다. 이 안타까운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다는 말인가.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하는 한 이 가슴앓이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 같다.

이 정부가 ‘5·18민중항쟁’을 인정하지 않는 까닭인가. 숭고했던 광주의 오월정신을 부정할 뿐 아니라 계승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기에 이런 현상이 빚어졌을까. 일부 과격 5·18단체들이 국가 시

책이나 정책을 무조건 받아들이질 못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아니면 광주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먹고 사는 일에 치여서 그런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물론 실제로 위기의 이유들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그렇지만 원인이 그 뿐이라면 의외로 해결책은 간단하다. 이 정부는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5·18단체들도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이뤄진다. 광주 경제는 지난 40여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예나 지금이나 경제적으로 늘 힘들고 버거운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제적인 기적이 일어날 성 싶지도 않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도록 위대했고 자랑스럽던 5월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도 되는 건가. 아니다. 충분히 방법이 있다. 먼저 다시 자신감부터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5·18민중항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광주 시민과 학생들이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

를 지키기 위해 수백의 생명을 잃어 가면서도 용감하게 싸웠던 역사가 아니던가. 일부 무지한 세력들이 이를 폄하하고 호도하려해도 소용없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초개같이 버렸던 광주 시민의 위대한 정신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먼 훗날의 역사가 이를 어떻게 기록할지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다시 오월이다. 푸르른 신록을 마음 놓고 즐길 수 없는 광주의 오월이다. 하지만 우리 각오는 새롭게 하자. 그리고 밖에서 어떤 말을 하건 간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우리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자. 먼저, 작은 일부터 실천해 보자.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그 날의 진실을 얘기 하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자신있게 교육하자. 문화 예술인들은 그날의 아픔과 용기를 예술로 승화한 작품들을 계속 발표하자. 그리고 5·18기념일에 가슴에 검은 리본 하나씩 다는 것을 잊지 말고 실천해보자. 그게 다시 오월에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일이다.

無 等 鼓

자식이 성년이 되면 가능한 많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게 부모들의 마음이다. 사회 지도층일수록 부와 권력을 물려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삶의 지혜나 인생의 철학은 평소 생활 속에서 가르쳐야 한다. 하지만 부나 권력 같이 세속적인 것은 물려줄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한다. 자식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상속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부작용은 불가피하다. 부에 넘치는 권력이나 준비되지 않은 상속에 대한 경계는 그리스 신화에서도 은유적으로 나타난다.

파에톤(phaeton)은 태양신 헬리오스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는 성년이 돼서야 출생의 비밀을 알았지만 주위에서 아무도 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 주지 않았다.

결국 오랜 세월 여행 끝에 해가 뜨는 동쪽 땅에 위치한 태양신전에 도착한다. 신으로부터 아들로 인정받은 파에톤은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겠다고 맹세한 아버지의 말에 ‘태양마차를 하루만 몰게 해 달라’고 부탁한다. 태양마차는 네 마리의 천마가 하늘에서 태양

을 하루 동안 실어 나르는 마차다. 파에톤은 태양마차를 몰고 하늘로 향했지만 마차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세상이 불바다가 되고 만다. 결국 그는 제우스신이 던진 벼락을 맞고 죽고 만다.

태양마차는 재산이나 권력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파에톤 이야기는 능력이 되지 않은 자가 권력(태양마차)을 갖게 되면 본인은 물론 많은 이에게 고통을 안겨 주고, 종국에는 파국을 맞는다.

경계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항공기의 평공 회항 시간, 운전기사 폭행

등 재발가 2세의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모가 일으켜 세운 가업을 위기에 빠뜨린 2세 기업인들도 적지 않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수험 명이 자기소개서에 전형 규정을 어기고, 부모 직업을 표시해 부정 입학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결국 자신의 능력이 아닌 부모 힘으로 변호사가 된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오늘은 성년의 날이다. 진정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자. /채희홍 사회2부장 chae@

성년(成年)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